



올해 겨울은 길고양이와 주민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로 사람들 주변에서 함께 살아온 길고양이들은 도시화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이 쓰레기봉투를 뜯어 놓는 것이 고양이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양이들을 죽여 없앤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동물자유연대는 사람과 길고양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며 길고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공급해주세요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는 이유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적절한 양의 사료를 공급해준다면 먹이를 찾아 쓰레기 봉투를 뜯는 일이 없어지고 길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실 때에는 인적이 드문 곳을 선택하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웃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길고양이에게는 먹이만큼이나 깨끗한 물이 중요하합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이 드문 곳에 물그릇을 준비해 길고양이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물에 설탕을 약간 넣으면 겨울철 물이 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TNR에 대해 아시나요?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한 후, 중성화 수술(Neuter)을 해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방법으로는 개체수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TNR 방식을 도입해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TN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 고양이들이 다시 거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 지역 주민들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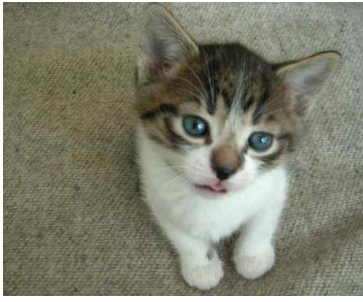
날씨가 추워지면서 길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 건물 지하나 보일러실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어린고양이의 경우 열이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시동을 켰는데, 엔진룸 속에 들어가 있던 새끼 고양이가 끼어 죽거나 다치고 또 자동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지하주차장 구석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보이는 불빛에 놀라 뛰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람과 고양이 모두에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생명을 거두는 일도 예방하고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장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요.

1. 자동차에 타기 전 보닛을 여러 번 노크를 하고, 출발하기 전 차 아래를 확인해요.
2. 주차장을 나올 때는 평소보다 더 서행해요.
3. 지하실을 이용한 후 그 사이 고양이가 들어와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을 잠궜어요.
4. 환기통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요.



사람도 길고양이도 함께 건강한 환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고양이는 10,00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의 주변에서 살아온 동물입니다. 먹이나 환경에 따라 각자의 영역을 지키는 동물로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 지역의 **고양이를 취약으로 소탕한다고 하면** 고양이 생태 상 인근의 다른 고양이가 결국은 이 영역을 찾아 옮겨오게 되며, 그 사이 고양이라는 천적이 없어진 구역엔 쥐떼가 몰려들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외의 농림식품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신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발정기 고양이 울음소리 문제,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문제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법(TNR)이 있습니다.

TNR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정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TNR을 시행하면서 고양이를 포획한 후 원래 있던 곳에 방사하지 않거나 중성화수술을 시키지 않고 안락사시키는 등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끝내버리면서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에 TNR의 시행을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커질수록 길고양이의 행복한 삶은 가까워집니다.

(TNR 신청방법 : 1577-0954로 전화하여 각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으세요.)

2. 또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놓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우리의 숨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물과 먹이를 주고 병들거나 다친 고양이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조치도 취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원래 집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고양이는 20년 이상도 살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평균 수명은 2~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웃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함께 돌보실 분은 _____ (연락처 : _____)로 연락주세요.



이 협조문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에서 제작하였으며, 필요한 지역의 주민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